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7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더위와 늦장마가 물러가고 어느덧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파란 가을하늘이 어찌나 좋은지요. 주님, 우리 영혼에도 시원한 하늘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욕심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르익어가는 오곡백과는 절로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결실의 계절은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와 일에 둘러싸여 감사와 반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진심어린 감사와 구도(求道)의 삶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교 독 문 13. 시편23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고정환 학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73(통331).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함께
 성경봉독 I. 눅15:1-7 이성의 학생
 II. 눅15:11-20 송동준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씀 I.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 김재홍 목사
 II. 방황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 김기석 목사

- 찬 양 305(통405).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삶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릇된 길을 걷고 있다면 길을 되돌리십시오.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우리의 방향을 넓은 품으로 끌어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 특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를 위해 넓은 품을 열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지켜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	추석 명절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권미정 집사	조윤경 학생
	김기석 목사	청년부	청년부

9월	영접위원	김인걸 권혁순 홍순구 박혜경 안홍숙 권미정
	헌금위원	윤석철 안홍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함께 기도하기

기도자는 일상의 일희일비(一喜一悲)로부터 한 발짝 물러설 필요가 있다. 특별히 어려움과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된다. 그 시각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기도 시간에 빛은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온다. 그 빛은 우리의 일상을 말 그대로 “비춘다”.

라르슈 공동체에서의 일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되살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내면의 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하며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간다. 우리는 분주함과 이기심 때문에 그 소리를 자주 듣지 못한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듣는 것이다.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다. 기도는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든다. 내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만남이다. 그분은 나의 감추어진 가치를 드러내 보이시고, 나를 복돋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더 큰 사랑과 연민의 세계로 부르신다.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고요한 현존인 침묵 속에서 안식할 수 있다.

온두라스의 라르슈 공동체는 매일 저녁 기도모임을 갖는다. 신뢰와 사랑을 위해 성령을 간구한다. 클라우디아는 자유롭게 이 기도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연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도자들, 나디앤과 클라우디아와 공동체의 모든 이들은 동등하다. 누구든 그 자리를 통해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자신이 체험한 사랑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자신의 이기심을 제거할 힘을 간구할 수 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이 나디앤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클라우디아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사랑과 봉사를 통해 자신이 더욱 성숙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도 다른 이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클라우디아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 인생여정은 사랑으로 인해 그 의미가 풍성해진다.

외로움은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처럼 보인다. 이것은 단지 홀로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고독과는 좀 다르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과 공동체와 우주의 한 부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자신을 그 무엇에도 속하지 못한 채 홀로 떨어져 나간 존재로 느끼는 것이다. 외로움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이다. 외로움은 온 우주가 자신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외로움은 자신을 죄스러운 존재로 느끼는 것이다. 별 이유도 없이, 본래 존재가 그런 것인지, 누가 정죄하는 것도 아닌데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혼돈의 거센 물결에 떠밀려 살아가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혼돈 속에 잉태되었고 혼돈 속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학대와 증오 외에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사랑을 줄 수 없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혼돈 속에서 살아왔기에 성장한 이후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뿐이다. 두려움과 증오처럼 사랑도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

정말 혼돈은 삶에 불가피한 부분인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려는 본능, 대립하려는 본능, 혼돈 속에 빠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장 폴 사르트르의 말처럼 사랑은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경험을 통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자신의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 근본적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서로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

열린 마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간다는 것은 상대방의 싫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성숙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행복한 사회란 사회 구성원 서로가 신뢰할 때, 나눔을 실천할 때, 깊은 관심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 ...

어머니의 못

정일근

교회에 다니는 작은 이모는 / 예수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대목에서 /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흐느낀다
어머니에게 전도하러 왔다가 / 언니는 사람들을 위해
못 박혀 죽을 수 있나, 며 / 함께 교회에 나가 회개하자, 며
어머니의 못 박힌 손을 잡는다
어머니가 못 박혀 살고 있는지 / 작은 이모는 아직 모른다
시를 쓴다며 벌써 여러 해 / 직장도 없이 놀고 있는 나는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작은 못이며
톡하면 머리가 아파 자리에 눕는 나는 /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큰 못이다
그렇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 나는 빼뚫어진 마루판 한 짝이어서
그 마루판 반듯하게 만들려고 / 삐걱 소리나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는 스스로 못을 치셨다
그 못들 어머니에게 박혀 있으니 / 칠순 가까운 나이에든 식당일 하시는
어머니의 손에도 그 못 박혀 있고 / 시장 바닥으로 하루 종일 종종걸음치는
어머니의 발바닥에도 그 못 박혀 있다
못 박혀 골고다 언덕 오르는 예수처럼 / 어머니 못 박혀 살고 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못에 박혀 / 우리 어머니 피 흘리며 살고 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김준우 우순덕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김순복 전영웅
 김혜권 박재임 이해동 맹은선 박창운 허정윤 서원금 윤미경 윤수진
 임주빈 최현옥 조관행 홍선희 허호범 박성실 김정애 조현권 박병구
 김정애 이우원 옥귀희 홍복선 이성운 양재성 임미심 이광용 형인순
 김혜영 곽새롬 박권동 무명

월정헌금:

송임희 윤주원 최윤선 이갑재 이봉배 이인웅 오송경 이재구 황선희
 김문주 이종현 노우중 권 순 최재욱 이수정 무명

감사헌금:

김순복 홍순구 안홍숙 이현순 김대규 조선환 류준모 심호선 이성범
 이민범 박병구 김정애 박창운 허정윤 곽새롬 정수복 장미란 최종훈
 김금하 황경순 하진솔 정희선 전세종 김정민

녹색공헌금:

윤정덕 구성실 박영희 김용길 최영혜 장원호 박성희 이성범 권현숙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에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장 혜 숙	정 두 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서 정 순	쉽
안 디 옥	임 정 자	최 경 미	임 정 자	쉽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박 경 선	이 명 희
갈 린 리	안 정 숙	진 정 숙	진 정 숙	쉽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문 복 순	오 정 숙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정 애	쉽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쉽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구 성 실	김 필 순
가 버 나 움	안 홍 숙	오 현 정	박 찬 정	정 현 주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정 영 선	김 희 우
갈 라 디 아	유 경 순	김 수 진	유 경 순	쉽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쉽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권	정 현 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기독교교육진흥주일** : 오늘은 감리교회가 정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올바른 예수적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수요집회** : 이번 주 수요집회는 추석명절 연휴 관계로 쉽니다.
3. **추석예배순서지** : 추석예배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 **신앙실천** : 명절 기간 동안 먼 길 오고갈 때 자리 양보, 차선 양보 잊지 마세요.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다음 주 : 예루살렘 속)

* 설거지 봉사 : 남창모 전충길 김세진 (다음 주 : 최경미 이수정 최재욱)

* 새교우 : 조선환 (2남선교회) 강인숙 (4여선교회) 조재현(청년부)
하지인 (청년부) 최양순 (7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